

## ■ K-리그 8개월 대장정 막 내려 (하)

## 광주 3년 연속 꿀찌 불명예 전남 막판 FA컵 정상 도전

올 시즌을 최하위로 마감한 광주상무는 3년 연속 꿀찌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모두 26경기를 소화한 광주는 2승 6무 18패 승점 14점으로 전년(5승 8무 13패·승점 23)보다 모든 면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특급 스트라이커' 정경호 등이 제대하면서 생긴 공백 때문이다. 남궁도 외엔 별다른 공격수가 없는 광주는 군인팀인 탓에 선수단 개편작업을 하지 못한 게 치명적이었다.

해마다 입대와 전역으로 44명의 선수단 가운데 절반이 바뀐다. 광주는 올해에도 22명의 선수들이 나가고 들어온다. 응봉을 영입할 수도 없고 필요한 포지션의 선수를 트레이드 할 수도 없다.

하지만 광주상무는 내년 시즌만큼은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국가대표 끌기며 김용태 등 굵직굵직한 선수들의 입단이나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신입 선수는 14일 발표 예정이다.

광주는 또 2008시즌에 대변신도 앞두고 있다. 프로구단 청단이 그것. 현재 기업과 시민이 공동으로 청단하는 시민구단 형태의 청단작업이 진행중이다. 빠르면 2009시즌부터 광주를 연고로 둔 새로운 프로팀이 태어나게 된다.

광주상무와 함께 지역연고 구단인 전남드래곤즈도 전년(6위)보다 4계단이나 추락한 10위로 정규시즌을 마감했다.

7승9무2패 승점 30점을 기록한 전남은 시즌 막판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눈앞에 뒀지만, 강민수, 백승민의 올림픽 대표팀 학출, 용병 시문과 이준기의 부상, 경고 누적으로 인한 흥성요의 출전 정지 등이 아킬레스건이 됐다.

그래도 마지막 명예회복의 기회는 남아있다.

2007 K-리그 최종 순위

순위	팀	승점	승	무	패	차
1	포항	51	16	6	9	1
2	성남	55	16	7	5	22
3	수원	51	15	6	6	11
4	울산	48	13	9	9	13
5	경남	44	13	5	9	10
6	대전	37	10	7	10	-3
7	서울	37	8	13	5	7
8	전북	36	9	9	8	4
9	인천	33	8	9	9	-2
10	전남	30	7	9	10	-3
11	제주	30	8	6	12	-8
12	대구	24	6	6	14	-11
13	부산	20	4	8	14	-19
14	광주	12	2	6	18	-30

오는 25일 광양과 내달 2일 포항에서 열리는 FA컵 결승 1, 2차전에서 승리를 거두면 된다.

'제철가 형제'인 포항과 맞붙는 전남은 이번 FA컵 결승전에서 올 시즌 정규리그에서 당한 수모를 깨끗이 씻어 내겠다는 각오다.

하지만 파리아스 감독이 이끌고 있는 포항의 저력도 만만찮다.

올해 포스트 시즌에서 연승으로 정규리그 우승컵을 거머쥔 파리아스 포항 감독은 "아직 만족할 수 없다. FA컵까지 손에 넣고 싶다"며 FA컵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FA컵 우승팀인 전남 역시 한국프로축구 사상 최초로 FA컵 대회 2년 연속 우승을 달성하겠다는 의욕으로 맞서고 있다.

허정무 전남드래곤즈 감독은 "정규리그에선 주전들의 출발로 10위에 머물렀지만, 현재 모든 선수들이 정상적인 커리션을 보이고 있고, 투지도 넘쳐난다"며 "FA 우승컵 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 명예회복의 기회는 남아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권(14 : 10-KBS1)

▲여자프로농구 <금호생명 : 삼성생명> (16 : 50-SBS스포츠)

▲프로농구 <SK : 동부>(18 : 50-Xsports), <오리온스 : 삼성>(18 : 50-SBS스포츠)

15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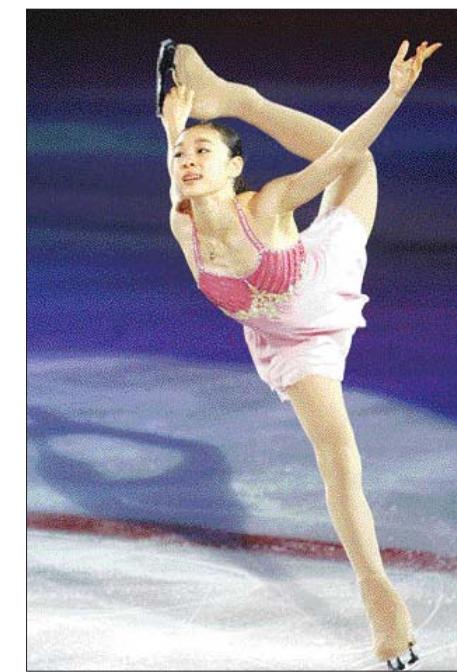
▲FINA 월드컵 수영 스웨덴대회(02 : 30-MBCESPN)



“곁으론 웃지만 속은 타네”

13일 대전 충남대 정심화홀에서 열린 2007유니버시티 & 2회 미즈보디빌딩대회에서 출전 선수들이 멋진 근육을 뽐내고 있다.

/연합뉴스



“1분, 1초도 아깝다”

## 김연아 훈련 돌입

'1분, 1초도 아깝다'

늦가을의 찬 기운이 코끝을 시리게 하는 13일 오전 6시20분, 승파구 잠실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에 '피겨여정' 김연아(17·군포 수리고·사진)가 브라이언 오서 코치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링크 한쪽에서 어머니 박미희씨가 자켜보는 가운데 김연아는 가벼운 몸놀림으로 빙판을 치면서 위빙업을 시작했다.

전날 오후 늦게 중국 하얼빈에서 돌아온 김연아는 늦은 저녁 식사를 마친 뒤 피곤을 달래며 잠에 들었고, 쉴 틈도 없이 꼭두새벽부터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치러질 시니어 그랑프리 5차 대회(22~25일) 준비를 위한 첫 훈련을 시작했다.

이번 시즌 자신의 첫 그랑프리 시리즈에서 가뿐하게 금메달을 목에 건 김연아의 목표는 두 시즌 연속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것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박성화호 “이기고 돌아오겠습니다”



6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축구 올림픽대표팀 선수와 코칭스태프가 13일 오후 출국에 앞서 인천공항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17일 올림픽 지역예선 우즈베텐

박성화호(號)가 6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의 중대 기로에서 우즈베키스탄 원정에 나선다.

박성화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축구대표팀은 오는 17일 오후 7시(한국시간) 우즈베키스탄과 2008 베이징올림픽 아시아지역 최종 예선 B조 5차전 원정경기를 치르려 13일 오후 결전지 타슈켄트로 떠났다.

한국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63위의 우즈베키스탄(한국 46위)을 상대로 베이징 올림픽 2차 예선 두 경기와 최종예선 1차전 등 세 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했다.

더구나 우즈베키스탄은 최종예선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1부3위로 조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상대는 이미 베이징행이 물건 너가 목표를 잊었다.

하지만 낙관은 금물이다. 3연승을 달리며 순항하던 박성화호는 시리아와 4차전 원정 경기에서 졸전 끝에 0-0으로 비겨 바레인(3

승1패)에 승점 1차로 허기고 있다.

한국-우즈베키스탄전 이후 열릴 바레인-시리아전 결과에 따라 한국은 본선 진출을 확정지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자칫하면 선두를 내놓을 수도 있다. 안방에서 경기를 치르는 한 수 위 전력의 바레인이 시리아를 제압할 가능성이 높다. 대표 소집 전 박성화 감독은 직접 우즈베키스탄으로 건너가 현지 그라운드 사정 등을 점검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 왔다.

그리고 21일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열릴 바레인과 최종전에 부담이 줄어든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프로 구단들의 협조로 규정보다 사흘 앞서 지난 6일부터 소집 훈련을 해온 태극전사들은 자신감에 차 있다.

K-리그 종료 후 길게는 3주 넘게 휴식을 가졌지만 소집 후 명지대, 선문대와 두 차례 연습경기를 통해 떨어졌던 실전 감각과 체력을 끌어올렸다. 대표 소집 전 박성화 감독은 직접 우즈베키스탄으로 건너가 현지 그라운드 사정 등을 점검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 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포항, K-리그 MVP 후보로 따바레즈 낙점

'파리아스 매직'을 앞세워 K-리그 챔피언에 오른 포항 스틸러스가 최우수선수(MVP) 후보로 '브라질 특급' 따바레즈(24)를 낙점했다.

13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이날 오후까지 14개 구단별로 MVP 후보를 취합한

결과 우승팀 포항은 따바레즈를 확정해 통보했다.

준우승을 차지한 성남은 김상식을 후보로 내세웠고, 사상 처음 6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돌풍을 일으킨 경남FC는 예상대로 정규리그 득점왕 카보레를 선택했다.

또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한 수원은 이관우를, '6강 기적'의 대전은 '마빡이' 데닐손을 각각 지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시즌 MVP는 사실상 정규리그 득점왕 카보레와 도움왕 따비레즈의 2파전 양상으로 진행될 공산이 커졌다.

한편 각 구단이 추천한 부문별 후보들은 13~23일까지 축구기자단 투표로 수상자가 선정된다.

## 이프로축구 폭력사태 격화

## 이번 주말 경기 모두 중단

경찰관이 쏜 총에 한 축구 팬이 맞아 숨지면서 총발된 이탈리아 축구 팬들의 폭력사태가 격화되자 이탈리아 축구연맹(FIGC)이 이번 주말로 예정된 모든 축구 경기를 중단했다.

13일(한국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FIGC는 이번 주말(17~18일) 열리는 이탈리아 프로축구 2부리그 세리에B와 3부리그 세리에C의 모든 경기 일정을 연기했다.

1부리그인 세리에A도 이탈리아 축구대표팀이 스코틀랜드와 2008년 유럽축구선수권 대회(유로2008) 조별리그 예선 원정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열리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 내의 모든 프로축구 경기는 이번 주말 열리지 않게 됐다.

## 대인동삼일부동산

☎(02) 223-1140, 220-1010 팩 010-612-2522  
(부동산 신뢰점검, 대인동 소재 사전견적)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 지역 상가증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  
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  
질 비전 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층 정도에 점포  
가 여러 칸인 상가를 대

표적인 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  
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  
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  
문 소개업체인 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  
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 무등공인중개사

☎(033-5221) 팩 011-609-5221  
(상무지구 입구)

## 건물

• 보증금 36억 원 세 3,000만 원(저  
희 고성가격) 월세 12억 원(저  
희 고성가격)

• 동부 솔밭마을 빌라 입구(신축빌립)  
• 용현역 인근 8층 1,700㎡면적에 상  
세비 34억 원

• 대구 대구 623,623㎡(490평)  
• 경상남도 100㎡(1,250평) (신축·영  
원·화재·철거·기타)

• 보증금 20억 원 세 3,000만 원  
• 월세 8억 원(65평)

• 보증금 8억 원 세 3,000만 원  
• 월세 8억 원(65평)

• 보증금 8억 원 세 3,000만 원  
• 월세 8억 원(65평)

• 대구 대구 623,623㎡(490평)

• 경상남도 100㎡(1,250평) (신축·영  
원·화재·철거·기타)

• 대구 대구 623,623㎡(490평)

• 경상남도 100㎡(1,250평) (신축·영  
원·화재·철거·기타)

• 대구 대구 623,623㎡(490평)

• 경상남도 100㎡(1,250평) (신축·영  
원·화재·철거·기타)